

## [강원도민선언운동 설명자료]

### 평창동계올림픽, 혈세낭비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강원도민선언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1. 도민선언운동 제안 취지 : 지금 강원도민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

동계올림픽을 위해 추진된 알펜시아 사업과 대책 없는 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으로 인해 강원도 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동계올림픽이 진행된다면 강원도의 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환경올림픽을 하겠다던 도지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500년 보호림 가리왕산이 스키장 건설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동계올림픽만이 강원도의 살길이며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왔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동안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올림픽 재정 적자와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무대응과 무책임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제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모아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환경파괴 중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수천억의 재정을 절감하고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경기장 시설 전면 재배치 대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2. 우리의 요구

- 최문순 도지사는 흑자, 민생, 균형, 환경, 평화올림픽을 치루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채와 민생복지 예산 축소,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하라
-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혈세낭비,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경기장 시설 전면 재배치 수용하고 IOC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라
- 정부는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의 무분별한 유치와 혈세낭비 악순환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 <답은 경기장 시설 전면 재배치입니다>

-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그 동안 시민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IOC의 핑계를 대며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말 IOC가 ‘올림픽 아젠더 20-20’ 을 발표하며 분산 개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강원도가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환경파괴를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장 시설을 전면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공사기간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배치는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3. 평창동계올림픽 재정적자와 환경파괴 문제

#### ■ 지켜지지 않는 약속

- 최문순 도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며 흑자, 균형, 민생, 환경, 평화올림픽을 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지만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흑자 올림픽은 당초에 바라지도 않았지만 균형, 민생올림픽은 재정적자 문제로 꿈도 꿀 수 없게 됐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민생복지 축소와 지역균형 발전 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500년 보호림 가리왕산을 훼손하며 환경올림픽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 심각한 재정 위기 : 강원도가 빛나는 올림픽이 아니라 강원도에 빛 남는 올림픽

- 과장된 동계올림픽 효과는 강원도에 감당하기 어려운 빛과 활용조차 막막한 애물단지 경기장 시설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 ① 막대한 시설 건립 비용과 사후 관리 비용

-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경기장 건설비용과 기존 시설보완 비용, 개폐회식장 건설비용 까지 총 8,530억의 예산 소요
- 신축하는 시설 7곳 중 사후 활용 방안 확정된 경기장은 아이스하키II 경기장 단 한 곳 뿐. 현재 상태라면 유지관리비와 시설보수비로 매년 수백억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평창에 앞서 국제스포츠 행사를 치뤘던 부산과 대구, 인천 등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시 이상일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2012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1만 석 이상의 경기장 93곳의 누적적자액은 3761억 원. 시설개보수비까지 더하면 5,744억원의 예산 지출

<부산시>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으로 쓰인 ‘아시아드주경기장’은 498억원, 사직실내체육관은 571억 원, 구덕주경기장은 420억 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대구스타디움 388억 원의 적자

<인천시>

얼마 전 아시안게임이 끝난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해 경기장 17곳을 새로 지었고, 이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금이 1조 2523억원, 이자까지 합치면 1조 7502억원. 1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을 갚아야 함.

경기장 시설별로 평균 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됨

②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는 강원도의 거짓말

- 재정자립도 20% 초반, 전국에서 최하위
- 강원도 18개 시·군 중 지방세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시·군이 14곳
- 알펜시아 재정 부채 1조원으로 매일 이자만 1억원 발생
- 2014년 말 강원도 부채 5,800억원,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해 매년 1,000억의 빚을 내야 하는 강원도 /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2조원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강원도

이것이 강원도 재정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는 강원도의 해명은 동계올림픽 재정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대회 이후 재정 지출 축소와 민생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경기장별 건설사업 현황 및 소요 예산

종 목		경기장 위치 및 규모		총사업비 (억원)	비고
<b>계</b>	<b>15개 종목</b>	<b>13개소</b>		<b>6,993</b>	
<b>설상(8)</b> ○ 신설 2 ○ 보완 1 ○ 기존 5	알파인 스피드	정선 중봉	슬로프 4면 / 12,000석	1,095	신설
	알파인 테크니컬	용평리조트	L=1,774m / 9,000석	-	기존
	스키점프	알펜시아	K125, K98 / 26,000석	-	
	크로스컨트리		L=7.5km / 4,952석	-	
	바이애슬론	알펜시아	L=4.0km / 5,064석	-	신설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L=2,018m / 11,000석	1,228	
	스노보드	보광 휘닉스파크	L=1,200m / 14,000석	205	보완
	프리스타일		코스6면 / 14,000석		기존
<b>빙상(5)</b> ○ 신설 4 ○ 보완 1	스피드스케이팅	강릉스포츠클럽	400m 더블트랙 / 8,000석 (지하2, 지상2)	1,311	신설
	피겨/쇼트트랙		32,184㎡ / 12,000석 (지하2, 지상4)	1,361	
	아이스하키 I		24,342㎡ / 10,000석 (지상3)	1,079	
	아이스하키 II	가톨릭관동대학교	19,666㎡ / 6,000석 (지하1, 지상4)	620	보완
	컬링	강릉스포츠클럽	컬링시트 4면 / 3,500석 (지상1)	94	

※ 기존경기장(3개소,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시설보완 총사업비 311억

▣ 가리왕산 환경훼손

- 희귀생물의 자생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환경부 지정 녹지자연도 9등급 가리왕산. 단 3일간의 스키경기를 위해 유전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40,000그루의 나무가 베어집니다. 희귀자생식물들의 자생지가 파괴됩니다.
- 스키장 건설비용 최소 1,100억원 이상, 복원비용 최소 1,000억원 이상
- 환경파괴와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기장 재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